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문 인 오¹⁾ · 김 희 선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대학생 시기는 발달적 도전을 직면하는 탐색기 후반과 확립기에 해당되며(Super, 1957),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자신의 욕구와 흥미, 능력, 가치 등을 파악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형성하고 전공지식 습득 및 실습 등을 통하여 직, 간접적인 직업세계를 경험함으로써 구체적인 진로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최동선, 2003). 하지만 이처럼 자아를 이해하고 직업을 탐색하여 직업선택을 확정지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에 불안정한 자아정체성 상태, 낮은 자기효능감, 진로정보에 대한 미흡한 지원체계, 낮은 진로정체감, 교육과정 내에서의 진로교육 부재 등과 같은 요인들이 진로결정을 방해함으로써(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Saka & Gati, 2007; 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 졸업 후에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 이직에 이르게 된다.

최근 만성질환의 유병률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재가환자 증가 및 의료기술의 향상, 의료개방 등의 국내외 의료사회의 변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간호사 이직율은 높은 상태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정정희, 김지수, 김경희, 2008; Oulton, 2006),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의 진로가 매우 다양하지만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

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탐색 활동이 부족하고 진로결정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가 미흡한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방경숙, 조진경, 2008). 실제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 전공을 이수하고 간호사라는 직업의 세계로 이행하였을 때 임상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시 자신이 상상한 직업의 세계와 다른 경우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이직을 결심하게 된다(김창희 외, 2009). 그러므로 간호교육 과정 중에서 간호대학생들이 보다 일찍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여 다양한 간호분야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고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진로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Hayes, et al., 2006; Roberts & Peggy, 2010).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개인의 기대감이며(Solberg et al., 1994), 진로탐색행동은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여러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려는 인지적, 행동적인 활동으로서(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 진로탐색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고 진로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개인탐색과 직업탐색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문인오, 이경환, 2010; 최동선, 2003). 진로결정수준은 자신의 전공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일컫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Osipow, 1999),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

주요어 : 간호대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수준

* 이 논문은 2012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1)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joha0219@naver.com)

투고일: 2012년 5월 18일 심사완료일: 2012년 7월 29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3일

행동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방향을 확실히 설정하게 된다(임선미, 2003; Nota, Ferrari, Solberg, & Soresi, 2007).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진로와 직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진로 준비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으로서(장순정, 2007), 국외의 경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비전 성립과 그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는데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onner & Wheeler, 2001; Tarigan & Wimbari, 2011).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에게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진로탐색효능감(조혜정, 김밀양, 2006)과 진로탐색행동(김순자, 2009)이 증가하고,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완성, 2005; 최용용, 박의자, 김효현, 2008). 하지만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대상자들은 한 전공분야가 아닌 여러 다양한 전공분야를 가진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공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진로준비 내용이 아닌 포괄적인 진로지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전공분야를 가진 간호교과과정 속에서 간호학 전공에 대한 고려와 함께 진로탐색과 직업세계 탐색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위 및 진로결정수준을 조사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더욱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의 진로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로준비활동을 하게 함과 동시에 향후 간호학과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

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6주 간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이다.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일 지역에 위치한 3년제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1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연구자가 전공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처치의 확산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군에게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시행하고, 1년 후에 1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조군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두 군간의 중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수준($\alpha=0.05$), 효과의 크기($d=0.80$), 검정력($1-\beta=0.80$)을 기준으로 단측 독립 t-검증을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 실험군 21명, 대조군 21명으로 총 42명이 필요하였고 탈락율을 고려하여 실험군 25명과 대조군 32명을 배정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 진행 중 건강악화와 개인적인 사정 또는 불성실한 응답을 한 대상자를 제외하여 최종 대상자는 실험군 22명, 대조군 28명으로 총 50명이었다.

본 연구대상자를 1학년 간호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로는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가 1~2학년이며, 대학 전 학년 가운데 2학년 때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학년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진로장벽 변인들을 지각하고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고향자, 1992; 장순정, 2007; 정애경 외, 2008).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4년제가 아닌 3년제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간호학 전공과목이 1학년 때부터 시작되고, 본 연구자가 학생상담 시 1학년때부터 진로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아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로탐색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1학년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도구

●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효능감은 Solberg 등(1994)이 개발한 진로탐색효능감 척도(Career Search Efficacy Scale, CSES)를 최옥현(2007)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탐색효능감 척도는 직업을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자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직업탐색효능감 6문항, 면접에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일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고용주에게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면접효능감 5문항, 자신이 원하는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는데 있어 기회를 구하고 지원하는데 주변의 정보나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관계구축효능감 5문항, 직업에 관해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선호하는바 혹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잘 인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개인적 탐색효능감 4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들로 이루어진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학과 교수 1인, 진로 및 취업상담가 1인이 설문내용을 확인하였고,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요인의 누적 설명변량이 73.6%로 나타났다. 도구의 신뢰도는 최옥현(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총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직업탐색효능감=.77, 면접효능감=.81, 관계구축효능감=.84, 개인적 탐색효능감=.80이었다.

●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은 최동선(2003)이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탐색행동 검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지난 6개월 내에 진로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한 행동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자기탐색 차원 12문항, 환경탐색 차원 16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거의 하지 않았다)에서 5점(매우 많이 하였다)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를 위한 탐색행동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요인의 누적 설명변량이 72.4%로 나타났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총 Cronbach's $\alpha = .93$,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자기탐색차원 = .89, 환경탐색차원=.90이었다.

●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Osipow 등(1980)이 개발하고 고향자(1992)가 번안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을 평가하는 2문항을 제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보기 위해 채점을 역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요인의 누적 설명변량이 73.2%로 나타났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고향자(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본 연구중재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틀은 Solberg 등(1994)의 진로탐색효능감과 Harren (1979)의 진로의사결정 이론을 토대로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장순정(2007)의 진로결정상담 프로그램과 본 연구자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한 내용을 분석하여 이용하였다. Solberg 등의 진로탐색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영역에 적용한 개념으로서 개인적 탐색과 진로탐색 및 직업탐색과 관련된 주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과 관련된 효능감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진로탐색효능감은 세 개의 발달적 선행요인(개인성격 특성, 가족의 애착과 기능수준, 자아정체감)과 환경적 선행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진로탐색과 진로선택 및 직업정체성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Harren의 진로의사결정 이론에서 효과적인 진로의사결정자는 적절한 자아존중감과 통합된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장순정(2007)의 진로결정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지각하고 있는 자기명확성 부족,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및 흥미부족의 제거에 초점을 두어 대학생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자기탐색, 자기이해, 진로이해 및 탐색,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년 6월에 1학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에 관련된 요구도를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선행조사하였다. 상담 분석결과 1학년 학생들은 간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본인의 성격이 간호에 맞는 것인지, 간호학 공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는지 등의 학문의 정체성과 졸업 후 간호사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olberg 등(1994)의 진로탐색효능감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자

아탐색과 Harren (1979)의 진로의사결정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진로결정과정에서 초점을 맞추었으며, 장순정(2007)의 진로결정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본 연구자의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수정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구체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매 주 1회기씩 총 6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매 회기마다 목적, 강의, 활동, 토의, 평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개인 활동과 집단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탐색(1회기) 및 자기이해(2회기)’ 영역에서는 연구대상자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성격,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보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시간을 스스로 알아보고 서로 간에 발표하도록 하였다. ‘진로이해 및 탐색(3회기)’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해보고 간호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의 흥미에 맞는 간호진로와 직업을 찾아봄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간호 직업군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합리적 의사결정(4회기)’ 영역에서는 자신의 의사결정유형을 알아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갈등에 대한 우선순위 게임과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진로의사결정(5회기)’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진로 및 직업을 설계하기 위하여 직업가치를 탐색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 예상방법 및 장애 대처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6회기)’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최종 진로 및 직업을 위해 4년간의 세부실천계획을 시간관리표, 수학계획서, 인생계단 설계표 등을 작성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간호학과 교수 1인, 진로 및 취업상담가 1인에게 내용과 타당성을 검증받은 후 최종 프로그램으로 결정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90분간 총 6회에 걸쳐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집단 상담실에서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1회 이상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프로그램 진행 도중 참여를 희망한 다른 대상자들은 합류시키지 않음으로써 폐쇄집단의 성격을 유지하였으며, 진로탐색프로그램의 시간 또한 엄격하게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하여 진로탐색 관련 도서 및 연구논문을 학습하였고 진로탐색 프로그램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총 2회의 진로상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과 상담관련 교육을 받았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회기별 주제와 목표 및 활동내용은 Table 1과 같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실험처치 및 실험군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2011년 2월 21일까지였으며 대조군 자료 수집 기간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2012년 3월 9일까지였다. 실험군의 프로그램 중재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6주 동안, 사후조사는 중재 3개월 뒤인 2011년 2월 21일에 실시하였다. 대조군의 자료수집은 실험군과 같은 학기의 같은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진로탐색 프로그램 효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험군 자료수집 완료 1년 후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를 위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를 위한 통계적 자료로만 사용될 뿐 대상자들의 성적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설명문을 함께 제공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실험군은 프로그램 시작 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수준 정도를 알아보는 설문지를 연구자가 배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중에 진로탐색행동은 최근 6개월 내에 수행한 행동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끝난 후 바로 실시하지 않고 약 3개월이 지난 후 사전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에게는 실험군과 동일하게 사전조사를 하였으며, 연구자가 진행하는 전공수업 시에 진로탐색에 대한 정보를 6주 동안 5-10분 정도 제공하였고, 실험군과 동일하게 3개월 후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자료수집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후조사 시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연구보조자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변수를 Kolmogorov-Smirnov test로 정규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진로탐색효능감($p=.708$), 진로탐색행동($p=.992$), 진로결정수준($p=.281$)으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수통계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χ^2 -test 혹은 independent t-test로 검정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그램 전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수준 차이에 대한 검정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는 J도 소재 1개 3년제 대학의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진로지도의 환경적 특성이 다른 대학 간이나 개인적 특성이 다른 대상자에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전 측정변수의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으로 실험군 22명, 대조군 28명이었다. 두 군 모두 성별에서 21명(95.5%)과 27명(96.4%)으로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실험군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이 13명(59.0%), 대조군에서 16

명(57.1%)이었으며, 입학 동기는 실험군에서 취업보장 10명(45.5%), 전문적 특성 8명(36.4%)순이었고, 대조군의 경우 취업보장 12명(42.9%), 가족이나 주위의 권유 9명(32.1%)순이었다. 간호학과 선택 시기는 실험군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8명(36.4%), 대조군에서 원서접수기간 13명(46.4%)이 가장 많았다. 동질성 검증에서 성별(p=.861), 종교(p=.890), 입학동기(p=.311), 간호학과 선택시기(p=.379)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동질함을 확인하였다(Table 2).

본 연구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을 한 결과 진로탐색효능감(p=.063), 진로탐색행위(p=.214), 진로결정수준(p=.953)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el 3).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Table 1> Contents of career search program

Areas	Sessions	Goals	Contents of activities
Self-exploration	1 (90min)	To introduce the program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Self-introducing and sharing individual expectations about the program Making nicknames related future occupations to each other
		To understand and affirm one's own feelings	Changing one's own thoughts and feelings Sharing attainment experiences due to efforts and feelings so far
		To grasp one's own goals of life	Talking about what is one's own goals of life
Self-understanding	2 (90min)	To investigat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one's own character	Announcing the results of the MBTI character type test Grasping one's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in terms of the SWAT analysis
		To seek what one likes and does well	Finding what one likes and is able to do well
Understanding and exploration of life paths	3 (90min)	To understand what one takes as valuable in one's own selection of a job	Sharing feelings after auctioning off senses of values mutually
		To understand future life paths and vocations	Investigating various jobs that a nurse can do and exploring vocations via mentoring
		To explore a path of life and vocations appropriate to one's own interest	Finding the vocation related to one's major out of what one likes and does well, as discussed in session 2 Predicting a path of life and vocations appropriate to me
Reasonable decision making	4 (90min)	To grasp methods of decision making in conflicting situations	Priority game about one's own conflicts Examining the type of one's own decision making
		To grasp reasonable methods of decision making	Examining reasonable methods of decision making
Decision making about one's own path of life	5 (90min)	To reasonably make a decision about one's own path of life and vocations	Exploring vocational values Attempting to make decisions about the path of life and vocations that one is currently worrying about
		To design one's own path of life and vocations	Exploring specific measures for, and expected obstacles of the final selected vocation and path of life, and measures of confronting the obstacles
Behavior for preparing path of life	6 (90min)	To establish a plan for action for the purpose of one's own final path of life and vocation	Checking practical actions within life
			Attending a lecture on time management and composing one's own table of time management
			Study plan - Designing my college life
			Designing my life stairs
			Sharing feelings while finishing the program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진로탐색 프로그램 중재 후 진로탐색효능감의 평균 점수는 실험군이 3.35±0.53점, 대조군이 3.24±0.47점이었으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44). 진로탐색행위의 평균 점수는 실험군이 2.72±0.86점, 대조군이 2.29±0.71점이었으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1). 반면, 진로결정수준의 평균 점수는 실험군이 2.40±0.43점, 대조군이 2.19±0.59점이었으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tes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2)	Cont. (n=28)	χ^2	p
		n (%)	n (%)		
Gender	Male	1 (4.5)	1 (3.6)	0.03	.861
	Female	21 (95.5)	27 (96.4)		
Religion	Yes	13 (59.0)	16 (57.1)	0.02	.890
	No	9 (41.0)	12 (42.9)		
Admission motivation	Employment guarantee	10 (45.5)	12 (42.9)	3.58	.311
	Correspond to score	1 (4.5)	-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	3 (13.6)	9 (32.1)		
	Professional trait	8 (36.4)	7 (25.0)		
Time for selection nursing major	Elementary school	1 (4.5)	-	4.21	.379
	Middle school	-	2 (7.1)		
	1st-2nd grade of High school	6 (27.3)	6 (21.4)		
	3rd grade of High school	8 (36.4)	7 (25.0)		
	Application period	7 (31.8)	13 (46.4)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outcome variables

Variables	Exp. (n=69)	Cont. (n=62)	t	p
	Mean ± SD	Mean ± SD		
Career search efficacy	3.03 ± 0.57	3.30 ± 0.46	1.91	.063
Job exploration	3.00 ± 0.56	3.30 ± 0.55	1.88	.066
Interviewing	2.99 ± 0.72	3.11 ± 0.61	0.66	.515
Networking	3.08 ± 0.73	3.41 ± 0.69	1.65	.106
Personal exploration	3.05 ± 0.57	3.41 ± 0.68	2.05	.050
Career search behavior	1.94 ± 0.55	2.16 ± 0.67	1.26	.214
Self-exploration	2.38 ± 0.76	2.44 ± 0.77	0.25	.802
Environmental-exploration	1.61 ± 0.45	1.95 ± 0.72	1.97	.054
Career decision making	2.34 ± 0.56	2.33 ± 0.56	0.06	.95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Comparison of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career decision making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treatment

Dependent variable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Exp. (n=22)	Cont. (n=28)	Exp. (n=22)	Cont. (n=28)	Exp. (n=22)	Cont. (n=28)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Career search efficacy	3.03 ± 0.57	3.30 ± 0.46	3.35 ± 0.53	3.24 ± 0.47	0.32 ± 0.73	-0.06 ± 0.59	2.07	.044
Job exploration	3.00 ± 0.56	3.30 ± 0.55	3.36 ± 0.41	3.30 ± 0.51	0.36 ± 0.67	0.00 ± 0.72	1.79	.080
Interviewing	2.99 ± 0.72	3.11 ± 0.61	3.36 ± 0.66	3.10 ± 0.50	0.37 ± 0.89	-0.01 ± 0.74	1.68	.099
Networking	3.08 ± 0.73	3.41 ± 0.69	3.32 ± 0.56	3.28 ± 0.59	0.24 ± 0.82	-0.14 ± 0.84	1.57	.123
Personal exploration	3.05 ± 0.57	3.41 ± 0.68	3.36 ± 0.68	3.28 ± 0.56	0.32 ± 0.87	-0.13 ± 0.79	1.88	.066
Career search behavior	1.94 ± 0.55	2.16 ± 0.67	2.72 ± 0.86	2.29 ± 0.71	0.79 ± 0.90	0.13 ± 0.85	2.65	.011
Self-exploration	2.38 ± 0.76	2.44 ± 0.77	2.92 ± 0.90	2.64 ± 0.79	0.53 ± 1.01	0.19 ± 0.93	1.22	.230
Environmental-exploration	1.61 ± 0.45	1.95 ± 0.72	2.58 ± 0.91	2.03 ± 0.76	0.97 ± 0.92	0.08 ± 0.99	3.28	.002
Career decision making	2.34 ± 0.56	2.33 ± 0.56	2.40 ± 0.43	2.19 ± 0.59	0.07 ± 0.78	-0.14 ± 0.75	0.96	.34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342$)(Table 4).

논 의

본 연구결과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효능감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김희수(2004)의 연구,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집단상담을 시행한 이지혜(2007)의 연구, 지체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시행한 최용용 등(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며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진로탐색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험군에서 진로탐색 프로그램 후 진로탐색효능감의 평점이 3.35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문인오, 이경완, 2010)에서 진로탐색효능감의 평점이 3.37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한 결과이며, 본 연구대상자가 1학년생임을 고려한다면 1학년때부터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진로탐색효능감을 증진시킨다면 보다 더 빨리 진로를 개발함으로써 학업적응 및 진로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로탐색효능감의 하부요인별로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직업탐색효능감, 관계구축효능감, 개인적 탐색효능감에 변화가 없거나 더 감소한 반면에,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에서는 증가하였고, 실험군의 사전사후 조사에서는 직업탐색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이 자기분석에 의한 진로를 계획하고 설정하며 간호진로 중에서도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도록 직업탐색을 행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Tarigan와 Wimbarti (2011)의 연구에서 졸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계획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포커스 그룹으로 분석한 결과 면접효능감과 관계구축효능감이 증가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을 나타낸 이유로는 본 연구대상자가 1학년인만큼 면접준비나 인간관계구축 및 자신의 능력 인식 등을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 세가지 효능감은 진로설정에 따른 구체적인 진로준비시기인 3, 4학년에서 증가할 것이라 추측되므로 면접효능감과 관계구축효능감 및 개인적 탐색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진로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일회에 걸쳐 한정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르게 구성하여 적용하

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진로탐색프로그램 후 진로탐색행동은 개인탐색행동과 환경탐색행동 모두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기탐색과 진로준비행동으로 구성된 집단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 김순자(2009)의 연구, 학부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기통찰력이 증가하였고 진로계획과 탐색에 도움을 주었다는 조혜정과 김밀양(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본 진로탐색프로그램이 간호학과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좀 더 정확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장기적으로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환경탐색행동이 개인탐색행동보다 더 큰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학과 1학년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 신문, 잡지, TV 프로그램과 같은 대중매체를 활발하게 이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취업설명회나 직업박람회 참관이나 직업전문상담 등의 구체적인 직업정보에 대한 탐색행동은 1학년 시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이 또한 학년에 따른 진로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르게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진로탐색프로그램 후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변화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시행 후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김현수, 장기명 및 이난(2004)의 연구와 박완성(2005)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김현수 등(2004)의 연구에서는 8회기의 프로그램 내용 중 직업탐색과 진로결정 준비가 4회에 걸쳐 시행되고 박완성(2005)의 연구에서도 12회기의 프로그램 중 4회 동안 진로탐색과 직업계획 준비가 걸쳐 시행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6회기 중에 2회기만 시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준비시간이 충분히 할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1학년 시기는 주로 교양과목을 수강한 경우가 많고 다른 학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공과목에 대한 강의나 실습교육을 덜 경험하므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만으로는 자신의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학과 1학년시기부터 증진된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은 간호대학생들에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구체적인 진로와 직업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3, 4학년 시기에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질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므로 간호학의 특성에 맞춘 학년별 진로지도 관련 교과목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준비과정이 서로 연계를 이루어 순차

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료수집이 1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가 외생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프로그램 운영시 학년이 같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별 변화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중단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본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간호학과 1, 2학년 시기에 자기이해 능력을 함양하고 미래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에 관한 진로탐색효능감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진로탐색행동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의 고찰을 통해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의 하부요인별 내용 중 간호학과의 특성상 학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진로결정수준 또한 1학년 시기에서는 구체적인 진로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학년별 수준에 따른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후 실험군의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진로결정수준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인 1, 2학년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탐색을 통해 미래의 진로와 직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지도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호학과의 경우 학년별 교육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학년별에 따라서 또한 자기이해, 진로준비, 진로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도 등 목적에 맞춘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따른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교과과정 내에 간호학의 특성에 맞춘 진로지도 관련 교과목 개발과 운영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김순자 (2009). 현실요법을 적용한 대학생의 집단진로상담 프

로그래밍 개발 및 효과검증. *진로교육연구*, 22(1), 39-52.
 김창희, 양승순, 김연자, 손연정, 유미애, 송주은 (2009). 간호사의 이직의도 구조모형. *간호행정학회지*, 15(4), 550-562.
 김현수, 장기명, 이난 (2004). 진로탐색프로그램의 적용이 대학생의 진로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8(1), 261-278.
 김희수 (2004). 진로정보 탐색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정보 가독력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7(2), 187-197.
 문인오, 이경완 (20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83-91.
 방경숙, 조진경 (2008). 일개 간호대학생과 졸업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88-97.
 박원성 (2005). 진로탐색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18(2), 289-304.
 이지혜 (2007). *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인지행동 진로집단상담의 효과*. 사회적지지,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임선미 (2003). *대학생의 전공영역에 따른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수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주.
 장순정 (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익산.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진로미결정 및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9(2), 551-564.
 정정희, 김지수, 김경희 (2008).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간호행정학회지*, 14(1), 35-44.
 조혜정, 김밀양 (2006). 대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5(2), 353-362.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요인 및 애착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최옥현 (2007).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최응용, 박의자, 김효현 (2008).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지체장애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논단*, 8(1), 145-169.
 Donner, G. J., & Wheeler, M. M. (2001). Career planning and development for nurse: The times has come. *International Nurse Review*, 48(2), 79-85.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 119-133.
- Hayes, L. J., Orchard, C. A., Hall, L. M., Nincic, V., O'Brien-Pallas, L., & Andrews, G. (2006). Career intentions of nursing students and new nurse graduat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3(1), 1-15.
- Nota, L., Ferrari, L., Solberg, V. S., & Soresi, S. (2007). Career search 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career indecision with Italian yout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2), 181-193.
- Osipow, S. H. (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35(2), 147-154.
- Oulton, J. A. (2006). The global nursing shortage: An overview of issues and actions. *Policy, Politics, & Nursing Practice*, 7(3), 34S-39S.
- Roberts, C. A., & Peggy, W. S. (2010). Choosing a career in nursing: Development of a career search instru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7(1), 1-18.
- Saka, N., & Gati, I. (2007).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persistent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340-358.
- Solberg, V. S., Good, G. E., Nord, D., Holm, C., Hohner, R., Zima, N., Hefferman, M., & Malen, A. (1994). Assessing career search self-efficacy expectation; Development of the career search 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2), 111-123.
- St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191-226.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Tarigan, M., & Wimbari, S. (2011). Career planning program to increase career search self efficacy in fresh graduat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4), 75-87.
- Tokar, D. M., Withrow, J. R., Hall, R. J., & Moradi, B.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19.

The Effect of Career Search Programs on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Nursing Students^{*}

Moon, Inn Oh¹⁾ · Kim, Hee Sun²⁾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effect of a Career Search Program on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making for nursing students. **Methods:** A non-equivalent pre-post test of a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used. Fifty first grade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with 22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8 in the control group. We used a Career Search Program which was held 6 times over 6 weeks, 90 minutes per session.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and independent t-test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with SPSS 19.0.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in career search efficacy ($t=2.07$, $p=.044$) and career search behavior ($t=2.65$, $p=.011$)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owever, career decision making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t=0.96$, $p=.342$).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Career Search Program has an effect on increasing career search efficacy and career search behavior in first grade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more programs to impact career decision making should be developed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areer, Counseling, Self efficacy, Searching behavior, Decision making

* This present research was supported b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Research Fund, 2012.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ee Sun

Department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Samnyero, Samnye-eup, Wanju-Gun, Jeonbuk, Republic of Korea

Tel: 82-63-290-1759 Fax: 82-63-290-1548 E-mail: joha0219@naver.com